누구탓도 말고 옳고 진실하게 살라

☞ 19면에서 계속

을 하다가 남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해가 안 가게끔 되니깐 그런 거 그렇게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죠.

▲질문자 1: 다음은 스님께서 둘이 아니다, 둘로 보지 마라 하는 법문을 수없이 많이 하셨고,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서 그간에도 여러 번 질문이 나오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중생들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면 육신은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동료나 도반 중 어느 한 사람이 견성을 했다면 나도 같이 견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 나도 같이 착한 사람이 되고 또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나도 같이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육신이 인연 따라서 이리도 모였다 저리도 모였다 하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음까지도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몸보다 마음 편해야

▲스님: 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몸은 공체죠. 공체로 우리가 살죠. 그런데 나만 그건 것이 아니라 딴 사람도 공체입니다. 모두가 공체, 공생, 공심, 공용을 하고 살고 또 우리가 들이고 내는 것도 공식으로서 그냥 들이고 내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공해서 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생겨서 사는데 또 지수화풍을 먹고살죠. 눈 하나를 보더라도 눈으로 여기저기 보지 한 군데만 보고 사는 분 없죠. 듣는 귀도 그렇고요. 몸 전체가 부딪히는 데로 다 그렇고 잠시 살짝 살짝 그냥 넘어가죠. 화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죠. 그러니깐 함이 없이 산다 이겁니다. 함이 없이 사십니다. 사시는 게 없이 산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성을 내고 막 악을 쓰고 했는데 악을 쓴 그 자체가 바로 마음 속에 남습니다. 악을 쓴 사이가 없는데도 그게 남으니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업이나 악을 풍기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라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탓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탓이 아니지만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잘 하든 못하든 내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라 이거죠. 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식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자식이 나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집의 문을 깨뜨렸거나 이래도 그건 부모가 물어줘야 하는 거죠. 자식이 깨뜨렸다고 자식이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책임을 지죠.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두가 제각기 다 자기 책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멋지게 싸을 필요는 있겠지만 멋지지 않게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싸우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런 소리도 없을 테죠. 돈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하면 돈이 엉뚱나게 엄청 생기는 수도 있죠. 그러니깐 물질이라 할지라도 말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안다는 얘깁니다. 우리 사람만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질문자 1: 감사합니다. 저 개인 행동까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 탓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런가 하고 탓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살아가는 생활 태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법문 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 라는 법문을 하시면서 멋진 말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모든 일 처리는 원하는 데로 부처님께서 할 테니까 실질적인 처리는 몸뚱이가 뛰어다니면서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관을 하고 편하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관하고 편하게 살다보면 마음이 편해지면 몸이 게을러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짐승들도 배가 고파야 사냥하기 위해서 뛰고 또 위험이 닥쳐야 됩니다. 주인공에 맡겨 놓았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꾸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요.

▲스님: 여러분은 편안하게 사시라 하면은 몸이 편안한 거를 생각하시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아무리 뛰어도 편안치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많이 해도 군색함이 없고 편안합니다. 그러고 또 '이걸 해야지' 하고 하는 일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니깐 모두 일하고 밥 먹고 똥누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똥 못 눠도 안 편합니다 그거. 그러니깐 마음도 편안하거니와 변소에 가도 시원하니 모두가 좋은 거 아닙니까. 소화 잘 되니 좋고. 모두가 좋은 거니까 편안한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일이 닥치게끔 하고 내가 부지런히 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편안하다는 얘깁니다. 하하하. 몸이 편안한 것을 말하지 마시고, 하루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림 · 최주현

남을 해롭게 하면 마음 오그라드니
마음 구기지 말고 펼쳐 좋게 사세요

말 · 행동 앞서 관하라

▲질문자 1: 감사합니다. 옳은 쪽으로 올바르게만 한다면 한생각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정진해서 한생각으로 다 끝나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어떤 땐 내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봅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미리미리 생각을 안해요. 내일, 모레 할 건데도 오늘 그냥 한생각으로 뭉그러뜨려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걱정하고 잡숫지 마세요. 그저 편안히 잡수면, 먹을 게 없다고 한 말 가지고 요걸 어떡하나 하고 잡수시면 만날 한말이 되다가 닷되가 되고 한 되가 되고 이래요. 그렇지만 걱정없이 관하시고 사신다면은 한가마가 생겨요. 그렇게 사세요. 마음이 너그러우면 몸도 너그러워지고 몸이 너그러워지면 가정도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자꾸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게 굴면 못 견딜 일이 자꾸 생겨요. 정말입니다. 정말 오늘 살림살이에서 필요한 것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말해 드렸는지 못해 드렸는지, 그저 제가 사는 것대로만 해 드린 겁니다.

▲질문자 2: 제가 마음공부를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발심을 내서 열심히 마음공부를 할 때는 매사에 무엇이든지 관을 먼저 하고 말과 행동을 했는데 어느 한 순간 말과 행동이 한 발 앞서 나가고 관하는 게 뒤에 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공부가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찍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님: 간단하게 말을 해서, 어린아이가 길에서 뛰다가 탁 넘어지면 엄마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엄마를 항상 불렀기 때문에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그거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건 관하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게 정신계의 진짜 자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자기한테 관하지 누구한테 관합니까. 관하고서 해야지 순서가 맞죠. 그렇게 하면서 뛰어도 뛰고, 일도 하고, 막힌 데를 뚫어 놓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만이 막혔던 데를 뚫고 막아야 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질문자 3: 저는 한 20년 전에 스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20년 후에 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 질문의 답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미진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보면 눈만 봐도 전이가 되고 그 업기가 느껴지고 몸이 괴롭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수행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시주물을 받아도 그 파장이 너무나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스님: 그건 스님의 생각이 딱 비어야 될텐데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마음은 이름만 마음이라고 말할 뿐이지 아주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니까 상대방 눈만 봐도 벌써 뭐가 오고 같이 앉았어도 뭐가 오고 그러죠. 그것은 스님을 자꾸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공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도 삶이 없이 산다. 먹어도 먹는 사이가 없이 먹는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앞으로도 한다고 할 것이 없다. 산다고 할 것도 없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뭐가 살아 있나 한다면 그냥 그릇이 탁 비어져 버리고 모습만 가지고 다니는데 뭐가 거기에 들어올 니까? 들어올 건덕지가 있어야 들어오죠. 그러면 오히려 그 쪽의 눈도 보이지 않죠. 정말 눈을 보려면 법안으로 보거나 심안으로 보거나 불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도 좋아지고 스님은 더 좋아지죠. 스님은 없으니까 그냥 없이 사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별의 별걸 다 먹었어도 먹은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 3: 이치로는 제가 아주 시원한 맛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마음요전을 읽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늘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스님: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얼토당토않게 말을 하더라도 그냥 믿고 끈기 있게 가 보세요. 그러면 스님은 붕 뜨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이 모두가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구로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비구니로 산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비구가 죽어서 비구니가 됐고 비구니가 죽어서 비구가 됐으니까요. 어느때 비구, 비구니스님들이 서로 만났는데 "예전에 내가 비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랬죠." "내가 예전에 비구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없구나'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예전의 은사스님 재를 지내야 할텐데 우리가 가서 은사, 제자가 없이 아예 확 터지게 하자고 그러니까 전자에 살았던 비구니, 비구들이 같이 모여서 갔는데 은사스님이 대들보에 숨어 있더랍니다. 구렁이가 돼서 숨어 있는데 "저 비구니 아무개하고 비구 아무개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래도 그 소리는 알아듣고 머리를 내밀어요. 큰 자백이에다 흰죽을 쒀서 갔다 놓고 부르니까는 내다보고 "아무개 제자야?"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깐 "인제는 제 앞에 와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서 고개를 내미는데 그냥 확 잡아당기니까 그 흰죽 담긴 자백이에 그냥 빠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날부터 그 이웃에 태어나서 다시 그 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흰죽 바가지에 쑥 들어가서 죽었으니 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자가 돼 가지고 성불을 하고 나중에 만나니까 서로 산생각을 하고 빰을 비비면서 "아무 것도 없는, 둘 아닌 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애썼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불을 확 올리면서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다 화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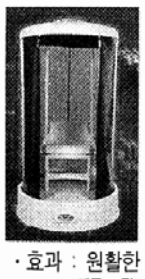
옛날에 사람들이 뒷덜미를 잡고 이런 거지도 다 있다고 하면서 팽개쳤어도 그 사람을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항상 거짓으로 살지 마시고 옳고 진실하게, 요만한 거라도 진실하게 하시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부처님 성전에서, 도리천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깐 여러분도 항상 마음을 구기지 마시고 펼쳐서 좋게 하시고 사세요. 편안하게, 남을 해롭게 한다면 자연적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나도 오그라들고 남도 오그라트리고요. 그러니깐 새해에는 좀 더 넓히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으르시기도 하고 좀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2001년 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불교전문 쇼핑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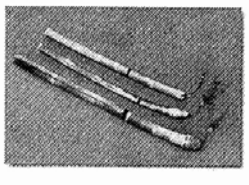
●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 - 32kg 의자 - 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 칼로리 소모 촉진.

● 참선명상방석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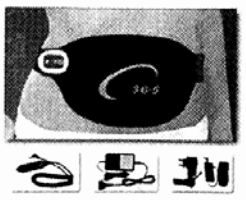
●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 죽 비

뿌리죽비(대) 25,000원
뿌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뿌리大, 뿌리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 (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 108 나한단주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玉(옥) 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 Dr.반다시(의자용)방석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갈대 5인다기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겉모습의 화려한것보다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형태입니다.
· 가격 : 80,000원

● 갈대 쥬스 잔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 그자체입니다.
· 가격 : 22,000원

● 연꽃 불자시계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